

2014 한국금융학회
추계 정책 심포지엄

모피아와 금융지주회사의 잘못된 만남: 금융권의 시대 추구

2014. 10. 31.

전 성 인
(홍익대 경제학과)

목 차

- ◆ 들어가면서...
- ◆ 우리금융지주 I: 탄생 설화
- ◆ 신한금융지주 I: 결탁의 가능성
- ◆ 국민은행 (before KB금융지주): 길들이기
- ◆ 하나은행 (before 하나금융지주): 론스타의 자각
- ◆ 외환은행 (before and after 하나금융지주): 론스타의 응용
- ◆ 신한금융지주 II: 정치권
- ◆ 하나금융지주 II: 무소불위
- ◆ 우리금융지주, 산은지주: 허가받은 낙하산 착륙지
- ◆ KB금융지주: 영차 영차
- ◆ 대안: 어려운 선택들...

들어가면서...

◆ 등장인물

- 전현직 관료, 업자, 정치권, 기생

◆ 목적: 돈, 오직 돈

◆ 수단

- 인허가, 징계, 자리보장, 자문, 승진 및 임명, 감사원, 검찰, 사외이사, 금발심, 광고, 외주

◆ 구조: 독과점

◆ 에피소드 => 이번 발표의 주된 대상

◆ 결과 및 대응

우리금융지주 I: 탄생 설화

◆ 표면적 이유:

- 대형화, 겸업화

◆ 실질적 이유:

- 구조조정 미비의 은폐
- 제2차 구조조정 난항 (한빛 조흥 외환 평화 광주 제주)
- “Put them all under the rug”

◆ 외부적 명분:

- “미국도 금융지주회사 한다” <= GLB Act

◆ 수단:

- 주식의 포괄적 교환

신한금융지주 I: 결탁의 가능성

◆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비율 규제 (2003년 당시)

- 차입한도: 자기자본의 100%
- 자회사 출자 한도: 자기자본의 100%
- 자기자본 비율 규제: 8%

◆ 자기자본 규제

- 무엇이 자기 자본인가?
- 2002.9. “어떤” 지주회사의 질의: 상환우선주가 자본인가?
- 금감원: “상법상 우선주는 복합금융상품이기는 하나 상법 상 주식으로 인정한다”
- 상환우선주 전액 자기자본 인정

신한금융지주 I: 결탁의 가능성

- ◆ 상환우선주를 은행 인수의 자금으로 사용
 - 주진형(2011)
 - 조흥은행 인수자금 전액을 상환우선주와 전환상환우선주 조달
 - 이중 상환우선주 조달액은 1조 7천억 (총 2조 7천억 인수자금 중)
 - 예보에 상환우선주 교부하고 조흥은행 인수,
 - 인수 은행의 영업 이익으로 상환우선주 상환
 - 전액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아 비율규제 회피
 - 외견상 유상증자에 의한 인수, 그러나
 - 실질은 금융지주회사법이 (사실상) 금지하는 LBO
- ◆ 신한지주가 발행했던 상환우선주의 내용
 - 발행금리 4.04%
 - 발행일 1년 이후 5년 이내 동안 조기 상환 옵션 행사 가능

국민은행: 길들이기

◆ 김정태 국민은행장

- 주택은행장 재직시 국민-주택 합병후 합병은행장 취임
- 비은행권 출신 은행장
- “주주 중심” or “장사꾼 방식” 경영 => 주식시장의 스타 은행장

◆ 하이닉스와 기촉법

- 2001. 10. 하이닉스 자금지원 두고 모피아-금융권 간 갈등
- 모피아: 기촉법 입법후 자금지원 압박
- 김정태 주택은행장: 하이닉스 채권 포기 => 주식시장은 대환영

◆ Educating Rita

- 2003. LG카드 지원 불가 입장
- 2004. 회계기준 처리 위반으로 징계 => 사퇴
- 윤종규 => 3개월 감봉후 KB 금융지주 회장,
- 이성남: 감사였으나 경징계후 금통위원직 유지

하나은행: 론스타의 자각

◆ 서울은행 매각 (2002년)

- 하나은행 vs. 론스타
- 금융정책국장: 변양호, 은행제도과장: 주형환(현 기재부 차관)

◆ 수정제안

- 2002.8.8: 론스타, 인수가액을 높이는 수정 제안서 제출
- 하나은행: 반발 및 법정 대응 검토 협박
- 2002. 8.14: 하나은행, 최저 회수가액 보장하는 수정 제안서 제출
- 공자위: 8.16일 예정 회의 연기 => 9.13일에 하나은행으로 결정
- 론스타: 1조2,500억원 vs. 하나은행: 1조1천억원+법인세 감면

◆ 론스타의 자각: How to win this war?

외환은행: 론스타의 응용

◆ 출연진

- 변양호: 2003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(매각)
- 추경호: 2003년 재경부 은행제도과장(매각), 2011년 금융위 부위원장(탈출), 현재 국무총리실장(ISD 소송 총괄)
- 주형환: 2003년 청와대 행정관, 현재 기재부 제1차관(ISD)
- 김석동: 2003년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(매각), 2011년 금융위원장(탈출)
- 류재훈: 2003년 금감위 은행감독과장(매각), 현 증권예탁결제원 사장
- 이강원: 2003년 외환은행장, 2005 한국투자공사 초대 사장
- 최경환: 2005년 국회 문서검증반, “론스타 저격수”, 현 경제부총리
- 김승유: 2011년 하나금융지주 회장(탈출)
- John P. Grayken + 검은머리 외국인(?)
- 기타: 로비스트, 교수, 교수가 된 변호사, 언론, 로펌에 취업한 검사, 의문사, 퇴직한 감독자, 현금받은 자, 연임하는 자

외환은행: 론스타의 응용

◆ Project Knight

- Q와 P의 trade-off
- 더 높은 곳을 향하여
- 매각자가 일을 하게 만들라

◆ 탈출

- 매수자가 일을 하게 하라
- 더 높은 곳을 향하여
- 머슴들은 신경쓰지 마라

◆ 재진입(?)

- 명동에 호텔 지으며 당당히 재기
- ISD 소송에서 정부와의 “입맞추기”

신한금융지주 II: 정치권

◆ 라응찬과 박연차

- 2009.3. 대검 중수부 “박연차 게이트” 수사중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발견 및 2007.3. 라 회장이 박연차에게 50억원 전달 정황 확인
- 대검: “개인자금을 투자목적으로 준것”+ “실명제는 행정제재 사안” => 형사처벌 면제
- 금감원: 2013.7.17. “신한은행 종합검사 결과” => 과태료 8,750만원 + 기관 주의

◆ 라응찬과 상촌회

- 상촌회(상주 촌사람들의 모임) 회장

◆ 최근 공개된 USB 파일(2014. 10. 26)

- 박정배 파일 (2012. 9.2) > 고소 후 > 방문대상자
- 정관계 및 언론계 주요 인사 망라

하나금융지주 II: 무소불위

◆ 김승유와 천신일

- “김승유, 천신일 부탁받고 미래저축은행 투자” 저축은행비리 합동 수사단, 김찬경 미래저축은행장 증언 확보 (2012.5.23, 한겨레)
- "김승유, 김찬경 둘이 만나서 하나캐피탈을 시켜가지고 돈을 싸줘라, 그래서 애네(하나캐피탈)들 실사도 안 하고 돈을 싸준 거예요“ (2012.5.22, TV조선)

=> 김종준 하나캐피탈 사장(현 하나은행장)만 문책

◆ 김승유와 하나학원

- 하나금융내 계열 금융기관 출연 지시
- 외환은행 편입후 출연지시 하다가 은행법 위반으로 중지
- 은행법 위반에 대해 처벌 없이 시행령 개정 편법으로 면죄부
- 론스타는 하나학원에 탈출하면서 기부로 “감사” 표시

우리금융지주, 산은지주: 허가받은 낙하산 착륙지

◆ 우리금융지주

- 예보 즉 정부가 최대 주주
- 점차 노골적인 낙하산 인사
- 윤병철 => 황영기 => 박병원* => 이팔성* => 이순우

◆ 산은지주

- 민영화 추진을 전제로 한 조직
- 강만수* => 홍기택*
- 향후 민영화 중단으로 다시 낙하산 인사 당연시 분위기

KB 금융지주: 영차 영차

- ◆ 금융지주 출범 이후 수난사와 줄대기
- ◆ KB금융지주 회장
 - 황영기* => 강정원 => 어윤대* => 임영록* => 윤종규
- ◆ KB국민은행장
 - (김정태) => 강정원 => 민병덕 => 이건호*
- ◆ 은행장과 지주회사 회장간의 알력
 - 강정원 vs. 황영기
 - 이건호 vs. 임영록
 - 사외이사들의 역할 부재

대안: 어려운 선택들...

◆ 인적 청산

- 000 사단, 000 로펌의 청산
- 금융 로비스트 등록제

◆ 지배구조 개혁

- 임원 자격 조건에 “금융회사 경력 3년 이상” 명기
- 내부고발자(whistle blower)에 대한 충분한 보상

◆ 감독구조 개편

- 금융위 해산, 금감원 민영화

◆ 감독기구의 직무유기·직권남용에 대한 통제

- 금융감독기구의 직무유기, 직권남용에 대한 행정소송 권한 확대

Thank You